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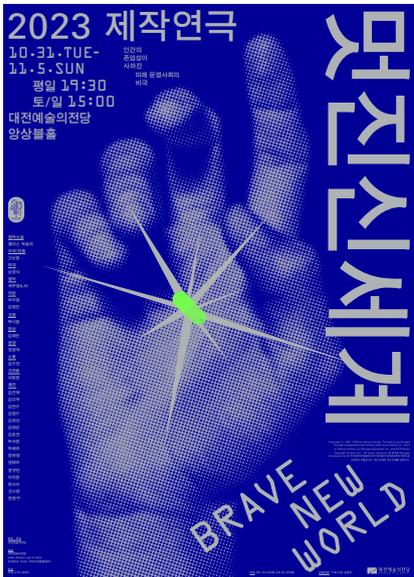
대전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가이드

Daejeon
Arts Center
Program Guide



11-12월호

제작연극 **혁슬리** [멋진신세계]
제작오페라 **베르디** [운명의 힘]
아침을 여는 클래식Ⅷ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인문학콘서트 [손병호&최지연]
정명훈×임윤찬×원헌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문화가있는날Ⅳ NTLive [리어왕]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회원음악회 [필하모닉스]



#가을엔 연극 #필독 도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진 미래
문명사회의 비극

대전예술의전당 18번째 제작 연극으로 영국의
소설가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신세계]를
선보인다.

[멋진신세계]는 1932년 발표한 디스토피아적
소설로 20세기에 쓰인 미래소설 가운데 가장
현실감 있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과학이
최고도로 발달해 사회의 모든 면을 지배하고
인간의 출생과 자유까지 통제해 인간성을
상실한 미래 세계를 신랄하게 풍자한다.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귀토’ 등 독창적인
작품해석으로 주목받는 중견 연출가 고선웅이
직접 각색과 연출을 맡고 방탄소년단, 김태리
등 월드스타들이 사랑하는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이 의상 제작에 참여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깊어져 가는 가을, 인간답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제작
연극 :

헉슬리
멋진
신세계

2023. 10. 31(화) ~ 11. 5(일)
평일 19:30, 주말 15:00

장소 앙상블홀
티켓 R석 3만원, S석 2만원
연령 17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약 120분
(인터미션 없음)



#민보작 #예당제작 #데스티니
#가을이니까 #오페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오페라

대전예술의전당이 개관 20주년 기념
오페라로 작곡가 베르디의 [운명의 힘]을
선보인다.

[운명의 힘]은 베르디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관현악의 조화가 아름답고 극의
전개가 흥미로워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무대에 자주 오르는 오페라다. 작품은 연인
사이인 레오노라와 돈 알바로, 그리고
레오노라의 오빠 돈 카를로 사이에
벌어지는 사랑과 이별, 원망과 분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관한 이야기다.

이번 무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오페라
연출가 이경재와 지중배 지휘자, 정성호
무대디자이너 등 최고의 제작진이
함께하며 소프라노 조선형, 테너 국윤종,
바리톤 길경호, 베이스 최웅조 등이
출연해 감동의 아리아를 선사할 예정이다.
깊어져 가는 가을밤, '운명의 오페라'를
만나보자.

제작
오페라 :

베르디
운명의
힘

2023. 11. 8(수) ~ 11(토)
평일 19:30, 토 19:00

장소 아트홀
티켓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약 160분
(인터미션 포함)

#모닝커피 대신 모닝클래식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아침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화요일 아침을 책임지는 대전예술의전당 스테디셀러

11월,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과 함께 어느덧 올해 아침을 여는 클래식 마지막 무대이다. 3월 14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7번째 마지막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이 장식한다.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소피 무터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라는 극찬을 받기도 한 백주영은 국내외 콩쿠르 우승은 물론,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개인 리사이틀, 앙상블 오푸스 리더, 서울대학교에서 후학 양성까지 여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부지런한 연주자이다.

화려하고 거침없는 그러면서도 매우 섬세한 해석을 선보이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연주로 2023년 아침을 여는 클래식의 마지막을 함께하시길.

아침을
여는
클래식

11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2023. 11. 14(화)
11:00

장소 양상블홀
티켓 전석 1만원
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80분 (인터미션 없음)

예술가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인문학 콘서트

11. 23.
무용 최지연 배우 손병호

대전예술의전당 앙상블홀
목요일 오후3시

#너는 내 운명 #연기에 미친 남자
#춤에 빠진 여자

문화예술 및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그들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2023 인문학 콘서트!!

다양한 삶의 무늬를 만나는 시간.

한 가족(부부) 안에 2명의 예술가가 표현하는 다른 듯 비슷한 예술적 영감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며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

배우 손병호와 무용가 최지연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을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란다.

인문학
콘서트

손병호&최지연

2023. 11. 23(목)
15:00

장소 양상블홀
티켓 전석 1만원
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미정



© Mathias Creutziger

#클래식의 정수 #역대급 조합
#전통과 기품

완벽한 호흡으로 완성하는 정통 클래식

이름만으로도 클래식 애호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정명훈, 떠오르는 샛별에서 완성형 연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한자리에 모인다.

2018년 내한해 후기 낭만 음악으로 비단결 같은 선율과 폭발적인 감성을 동시에 보여준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 독일 전통 사운드의 수호자라는 호칭에 걸맞은 색채로 베토벤의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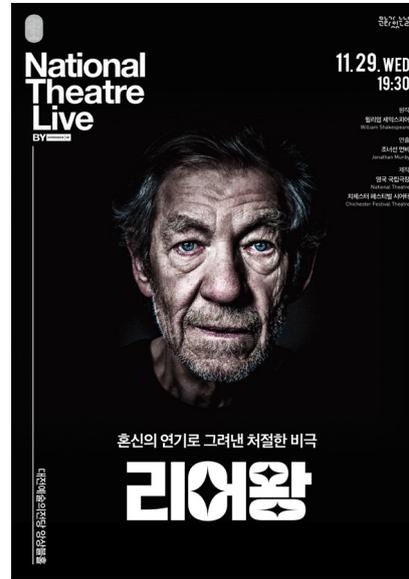
전통을 잇는 기품 있는 연주를 들려줄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유려한 피아노 선율을 더할 협연자는 2022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탁월한 깊이와 눈부신 테크닉을 증명했다'는 극찬과 함께 최연소 우승을 거머쥔 피아니스트 임윤찬이다.

마에스트로 정명훈의 지휘와 전 세계에 파란을 일으킨 임윤찬, 그리고 전통과 기품의 뮌헨 필하모닉이 완성하는 정통 클래식의 정수. 이를 만날 가을이 기다려진다.

2023. 11. 25(토)
17:00

장소 아트홀
티켓 R석 20만원, S석 17만원,
A석 12만원, B석 7만원,
C석 5만원
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10분 (인터미션 포함)

정명훈
임윤찬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명작과 명배우 #이연 매켈런

혼신의 연기로 그려낸 처절한 비극
NT Live [리어왕]

영국 국립극장이 제작하는 NT Live는 세계 연극계 화제작을 실황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11월에 만날 NT Live 상영작은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다.

영화, TV 등을 통해 사랑받고 있는 명배우 이연 매켈런의 혼신의 연기로 그려낸 감동적인 리어왕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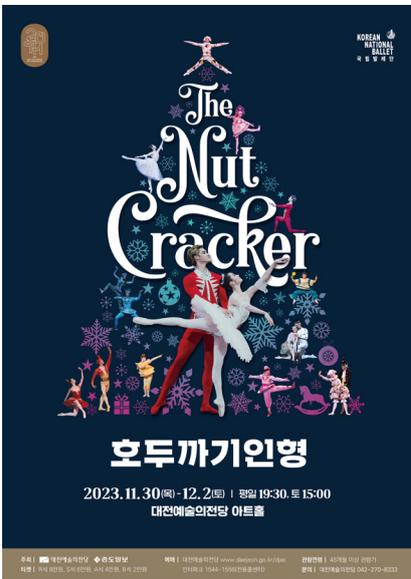
두 명의 늙어가는 아버지, 한 명은 왕이고, 다른 한 명은 신하인 두 사람은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녀를 믿지 못하고 거부한다. 이 두 사람의 무지함으로 가족과 국가가 권력의 투쟁에 빠져들고, 배신과 야망의 토네이도를 불러일으켜 결국 인간으로서 가장 비극적 몰락을 맞이한다. 이 비극의 결론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이연 매켈런의 리어왕이 여전히 궁금하다면, 이번 NT Live로 확인해 보자.

리어왕

NT LIVE
문화가 있는 날 IV

2023. 11. 29(수)
19:30

장소 앙상블홀
티켓 전석 2만원
연령 14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22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차이콥스키 #12월에는
#발레 호두까기인형을 봐야해

매년 겨울,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발레계의 스테디셀러 [호두까기인형]이 국립발레단의 무대로 관객들과 함께한다.

국립발레단의 [호두까기인형]은 볼쇼이발레단을 33년간 이끌며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유리 그리고로비치의 버전으로, 웅장하고도 장대한 구성으로 사랑받는 작품이다.

고난도 안무가 선사하는 짜릿한 쾌감은 어린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을 매료시키면서 동시에 어린이에게는 환상적인 동화 속 세상을,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가족과 친구 그리고 연인과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으로 더욱 특별한 연말을 맞이해 보자.



필하모닉스 단체사진

#남다른 클래스 #파격적 클래식
#실력과 유머감비

최고의 연주력으로 무장한 세련된 퍼포먼스
필하모닉스는 세계 최정상 오케스트라인 빈 필하모닉 & 베를린 필하모닉 소속 연주자와 다재다능한 연주자들 7명으로 구성된 실내악 앙상블이다. 현악 4중주와 클라리넷, 더블베이스, 피아노가 더해진 독특한 구성으로 정통 클래식부터 재즈, 클래즈머(Klezmer), 라틴음악, 팝 음악을 세련된 편곡으로 연주한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경이로운 연주력에 위트 넘치는 퍼포먼스를 더한 이들의 무대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을 선사한다. 클래식에 대한 열정과 화려한 기교가 만나, 장르의 한계를 넘어선 그들만의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선사할 것이다.

국립발레단 :

호두까기인형

2023. 11. 30(목) ~ 12. 2(토)
평일 19:30, 토 15:00

장소 아트홀
티켓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연령 48개월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20분 (인터미션 20분 포함)

필하모닉스 :

필하모닉스

2023. 12. 19(화)
19:30

장소 아트홀
티켓 (일반)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티켓 (회원) R석 2만 1천원, S석 1만 5천원, A석 9천원, B석 6천원
연령 8세 이상 관람가
소요시간 100분



인스타그램
INSTAGRAM



카카오채널
KAKAO



회원가입
JOIN



아트너
ARTNER

대전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가이드
11-12월호



웹사이트 www.daejeon.go.kr/djac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135
문의전화 042-270-8333